



## 9월6일 홋카이도 지진발생에 따른 현지 상황에 대하여

9월6일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신치토세 공항이 폐쇄되고 홋카이도 전역에 정전이 발생하여 관광객의 귀국과 체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은 9월8일부터 일부 재개되어 한국 관광객이 귀국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항 폐쇄와 함께 중단되었던 신칸센, JR 및 삿포로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도 모두 재개되었습니다.

홋카이도 지역의 중심가인 삿포로 시내는 편의점의 물건이 평소보다 적게 진열된 것 이외에는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함은 없으며, 홋카이도 전역의 관광시설 및 호텔시설은 피해를 입은 곳이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곳은 없지만 이번 지진으로 겪은 대정전 사태로 인해 홋카이도 타카하시 지사님께서 20% 절전을 호소하신 바, 그에 동참하여 홋카이도 호텔 및 료칸 시설들은 새벽 2시간 정도의 계획 정전 및 절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관광하시는 데에 안전성이라기 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현재 삿포로 시내에서의 여진은 없는 것으로 현지에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분들께 약간의 도움이 되고자 현지의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2018.9.12

홋카이도 사무소 소장 사사키 케이